"실질금리 마이너스지만 안전한게 최고"

시중자금 은행으로 몰린다

5월 光銀 등 은행권 수신 18조 급증

올들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은행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지만, 광주은행을 비롯한 은행권 수신고가 치솟고 있다.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의 동반 침체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데다 남유럽 재정위기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감 등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추세가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

◇ 시중銀 수신 18조 급증 =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수신은 1039조2000억원으로 18조6000억원 증가했다.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증가액은 작년 2월의 23조1000억원 이후 최대폭이다.

수시입출식예금은 대규모 법인자금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유입 등으로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작년 2월의 16조5000억원 이후 최대폭이다. 정기예금도 월드컵 마케팅 등을 통한 은행의 예금유치 노력으로 12조4000억원 늘어났다.

광주은행 수신(월말 잔액)도 1월 11조9580억원, 2월 12조442억원, 3월 12조1184억원, 4월 12조2490억원, 5월 12조2699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정기예금도 1월 6조2230억원, 2월 6조2350억원, 3월 6조3170억원, 4월 6조365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정기예금 수신감소는 5월(6조2280억원) 뿐이었다.

정기적금은 1월 237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5월 현재 2570억원으로 내려앉았다.

◇ 실질금리 마이너스…예금 증가 이유는 =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신규취급액 기준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연 2.89%에 불과했다. 같은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인 점을 고려할 때 세금을 빼고 나면 실질금리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셈이다.

예금 금리가 낮은 데도 은행으로 돈이 몰리는 이유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달 남유럽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고, 이 때문에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이나 단기 정기예금 등에 자금이 몰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업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고 있다. 모 은행의 경우 지난달 정기예금 증가액 3조원 가운데 개인 자금은 2000억원 가량이며 나머지는 기업자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현금을 보유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암벽용 '트랙스 등산화' 출시 아웃도어 브랜드 몽벨은 9일 서울 현대백화점 신촌점에서 '트랙스(TRAX) 등산화' 출시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접지력과 밀착력이 뛰어난 트랙스 고무를 밑창소재로 사용해 화강암이 많은 국내 암벽 등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가격은 13만2000~15만5000원. /연합뉴스

하반기 은행 채용문 '활짝'

정규직 1800명 이상 선발… 작년보다 8.5% 늘어

국내 주요 국책은행들과 시중은행들이 올해 하반기에 1800여명 이상의 정규직 신입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수출입·기업 등 국책은행들과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농협 등의 시중은행들의 올해 하반기 정규직 채용 규모는 1800명 이상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1658명보다 8.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하반기에 530명을 공개 채용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300명씩 신규 채용한다. 인턴은 올해 하반기 1100명을 포함해 올해만 모두 3300명을 뽑는다. 신한은행은 올해 상반기 320명을 각각 뽑은 데 이어 하반기도 400명 내외의 정규직을 채용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하반기에는 300명을 새로 뽑기로 했으며 하나은행도 200명을 채용한다.

국책은행 가운데 기업은행은 올해 하반기 200명 이상을, 산업은행은 예년 수준인 80~100명 정도를 공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신용등급따라 이자율 무려 15% 차이

1등급 6.7% 10등급 21.9%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사람과 가장 낮은 사람의 이자율 차이가 15%포인트 이상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용등급을 1등급 올리는 데는 평균 4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공과금 등 소액이라도 연체하면 신용등급은 순식간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개인신용정보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6월 현재 은행, 저축은행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대출현황 통계를 바탕으로 등급별 평균 이자율을 산정한 결과, 1등급은 6.7%, 10등급은 21.9%로 조사됐다. 1등급과 10등급간 이자율 차이가 무려 15.2%포인트에 달한다.

예컨대 신용대출 1억원을 받는다면 1등급과 10등급 간 이자금액은 최대 1520만원 차이가 난다는 의미다.

2등급 평균 이자율은 7.7%, 3등급 9.7%, 4등급 12.3%, 5등급 15.1%, 6등급 16.9%, 7등급 19.0%, 8등급 20.0%, 9등급 21.3% 등이었다.

또 신용등급 1개 등급을 올리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4.3개월인 것으로 집계됐다. KCB가 보유한 3800만명의 신용정보 자료를 1년간 분석한 결과, 2개 등급을 올리는 데는 5.6개월, 3개 등급은 6.5개월, 4개 등급은 7개월, 5개 등급을 올리는 데는 7.5개월이 각각 걸렸다. /연합뉴스

잠자던 동전 한달새 32억 걷혀

광주·전남지역에서 한달새 책상서랍과 저금통장에 들어있던 잠자던 동전 32억원이 걷혔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9일 지난 5월 한달 동안 광주·전남지역 은행과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과 함께 '범국민 동전교환 운동'을 벌여 모두 2323만3000개의 동전을 지폐로 교환해줬다고 밝혔다.

액수로는 32억5800만원이며 교환한 동전을 제조 비용으로 환산하면 21억원에 달한다.

동전 종류별로는 100원 짜리 동전이 1335만개(13억3500만원)로 가장 많았고 10원 짜리 402만개(4020만원), 500원 짜리 353만3000개(17억6600만원), 50원 짜리 233만개(1억1700만원) 등이다.

동전 교환 과정에서 자투리 동전 모금함에 모아진 모금액은 모금 주체별로 전액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물만 부으면 바로 먹는 '김국'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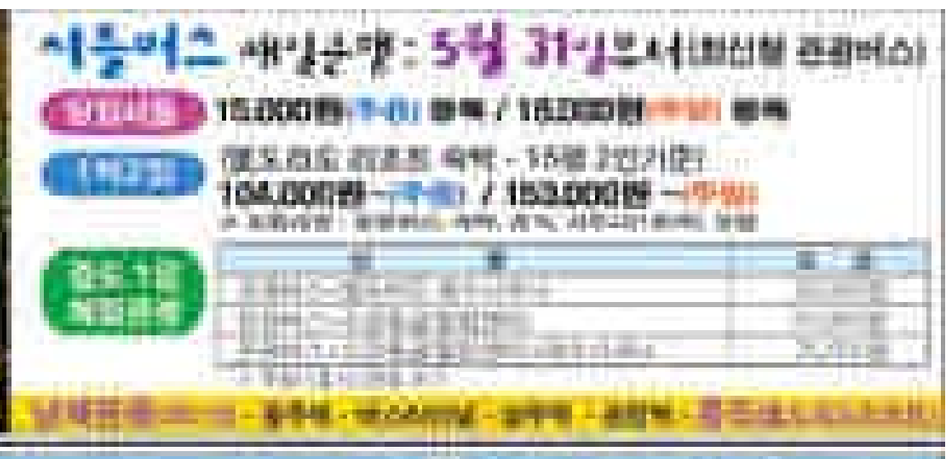
화순 다산생명과학원(주) 10가지 자연재료 영양간식

물만 부으면 곧바로 먹을 수 있는 즉석 김국이 나왔다.

화순에 있는 식품개발업체 다산생명과학원(주)(대표이사 김영국)은 천연 김과 퉁퉁마디(함초)·바지락·다시마·새우·북어 등 10가지 자연재료와 국간장으로 맛을 낸 영양간식 '퉁퉁마디 김국'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도 해양바이오연구원과 1년여간 공동 연구개발해 상품화한 '퉁퉁마디 김국'은 천연 김의 향과 맛을 살린데다 30초 내 즉석 조리가 가능해 시간에 쫓겨 아침식사를 자주 거르는 수험생이나 직장인, 골프·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좋다. 또 타우린을 다량 함유한 김과 퉁퉁마디가 알코올 분해를 도와 음주 후 해장국용은 물론 트랜스지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 다이어트식품으로도 적당하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특히 전국 김 생산량의 61.2%(12만8704t)를 차지하는 전남 김 생산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퉁퉁마디 김국'은 컵용과 봉지용 2종이 출시됐고 가격은 컵용은 1000원, 봉지용(3개)은 2000원이다. 문의 062-942-6600.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